

Clinical Observership in Oncology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Cancer Center

양은규(본과 4년)

1. 실습배경

본과에 올라와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같은 내용을 외국 병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어떻게 익혀 나가는지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본과 3학년 때부터 임상 실습을 시작하고 나서 과연 해외 의과대학에서는 어떻게 실습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케이스 발표 등을 하며 NEJM, Lancet 등에 실린 논문을 인용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세계의 대가들은 어떻게 Practice 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지내왔었다.

그러던 도중 본과 4학년 <의학연구> 과목에 대해서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병원을 경험해 볼 기회를 가지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의 진료 및 연구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참관해볼 수 있는 observership program 이 개설되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였고, 그 결과 7월 한 달 간 미국 Boston에서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실습 기간 중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세계 유수의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Harvard University의 Affiliate인 MGH에서 어떻게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참관을 통해 알아가고 싶었다. 본과 3, 4학년 때 본교 실습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와 어떠한 점이 비슷하고, 어떠한 점이 다른지, 외국의 체제에서 본받을만한 점은 있는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둘째로, 전부터 MGH에서는 수많은 의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수님들 및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고 싶었다. 이를 통해 이번 실습을 향후 의사 및 의학자로 지내게 될 때 연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큰 기회로 삼아보고자 하였다.

셋째로, 한국과는 다른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지, 시스템의 장/단점은 어떤지, 현지의 여러 선생님들 혹은 실습 도중 만나게 될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며 알아보고 싶었고, 그 차이점을 파악한 뒤에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내용 중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2. 실습 소개

1) 실습 기간 : 2016.07.05.(화) ~ 2016.07.29.(금)

2) 실습 장소 :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

-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

대부분의 실습은 MGH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주 중 하루는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에서 외래 참관 실습을 진행하였다. MGH는 Harvard Medical School의 main educational hospital이며, Spaulding 또한 Harvard University Affiliate Hospital 중 하나이다.



3. 실습 내용 및 배운 점/느낀 점

※ 실습 일정은 컨퍼런스 참석 및 몇몇 교수님의 외래 진료 참관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컨퍼런스의 경우 주마다 반복되는 일정들이 많아 각각의 실습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인상 깊었던 실습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Dr. Jeffery Clark 외래 참관 (Medical Oncology, GI part) (2016.07.11.)

이번 MGH 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외래 참관이였다. 실습 중 처음으로 참관하게 된 외래였으며,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암 치료의 개괄적인 흐름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외래 참관이였다. MGH에서 Clinical Trial Program의 Director를 맡고 계셔서 그런지 외래 환자들 중 Clinical Trial에 관여된 환자들이 많았으며, 환자를 보러 가기 전 Brief History를 알려주시고, 어떠한 항암제가 쓰이는지 설명해주셔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서도 진행된 폐암 EML4-ALK Targeted agent인 Crizotinib 1상 임상 연구의 PI 였다고 하시면서 한국 의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항상 온화한 얼굴로 환자를 대해주시며,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좋은 환자-의사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앞으로 practice 해 나갈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2) Dr. Carlson Consultation 회진 참관 (Hematology part) (2016.07.08.)

첫 주 금요일에 Hematology part의 Dr. Carlson Consultation 회진을 함께 돌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관해 볼 수 있었다. 회진을 돌기에 앞서 회의실에서 펠로우 선생님, PA, 교수님이 모여 환자의 병력을 파악하고 어떻게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실제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만나고 Consultation에 대한 답을 해당 주치의 선생님께 전하는 방식으로 회진이 이루어졌다. ITP, Anemia,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실습 도중 거의 유일하게 입원 환자들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고, 이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다. 회진을 돌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ICU 실습을 도는 Medical student가 있었는데, 실제 주치의 선생님처럼 배정된 환자에 대한 car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자 병력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으며 교수님과 활발한 discussion을 나누는 모습이였다. MGH의 입원 환자 및 중환자실 환자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실습이었다.

3) Dr. Jennifer Wo 외래 참관 (Radiation Oncology, GI part) (2016.07.13.)

둘째 주 수요일에 참관하였던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님의 외래였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Radiation induced complication은 없는지, 항암치료 및 수술 치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외래 f/u 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전체적인 흐름은 올해 병원 실습에서 2주 동안 배웠던 방사선종양학과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고 배웠던 췌장암의 proton therapy 등 췌장암의 RT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서 이를 통해 MGH에서는 여러 임상 연구가 실제로 환자들에게도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환자들도 임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에서도 Clinical Trial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 조금 더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었던 외래참관이였다.



4) Dr. Ryan Sullivan 외래 참관 (Medical Oncology, Melanoma part) (2016.07.20.)

우리나라에는 드문 질환이지만, 미국에서 melanoma의 incidence는 매우 높다고 들었고,

따라서 그 치료 방침이 미국이 더 잘 정립되어 있다고 배웠었다. 이 때문에 melanoma clinic 외래에 들어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관하였던 것 같다. melanoma의 경우 암 치료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immunotherapy (anti-CTLA 등)에 효과가 좋은 암이라는 내용을 새롭게 알 수 있었고, 흔한 암에 대해 이렇게 따로 clinic을 두고 따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른 외래들과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환자를 보러 가기 전에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보다 더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Maine 주에서 medical school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함께 참관하면서 미국에서의 의대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5) Dr. David Crandell 외래 참관 (Amputee 외래,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

(2016.07.27.)

마지막 주 수요일에 참관하였던 외래이다. 또 다른 Harvard Affiliate 중 하나인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병원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참관했던 외래는 Dr. David Crandell의 Amputee 외래인데, Amputation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f/u 외래였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환자는 10대 소녀 환아였는데, 1개월 전 Cardiac myxoma에 의해 만들어진 embolism이 다리의 운동을 관여하는 부위로 가는 cerebral artery를 막아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자 amputation 수술을 진행한 case였다. 몇 주 전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막 걸음 훈련을 시작한 환아였는데, amputation을 얼마 전 진행했지만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 기억에 남는다. 교수님께서 의학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인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하며 진료를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6) Hematology/Oncology new patient conference (2016.07.18. / 2016.07.25.)

MGH Cancer center의 Hematology/Oncology part에서는 매주 월요일 점심 시간에 지난주 있었던 신환들에 대해 펠로우 선생님들이 케이스발표를 하고, Medical Oncologist, Pathologist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모여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신환 컨퍼런스가 있다. 1주차에는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 2주차에는 새로운 펠로우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관계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3주차와 4주차 월요일에 컨퍼런스를 참관할 수 있었다. Breast cancer, Lymphoma, Liver cancer, Leukemia 등 다양한 종양의 치료 방침에 대해 결정 내리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교수님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7) Medical Grand Round (2016.07.07. / 2016.07.14. / 2016.07.21. / 2016.07.28.)

MGH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Medical Grand Round를 진행한다. 매주 분과별로 돌아가면서 주제를 선정하여 presentation이 이루어지는데, 인상깊었던 주제는 첫주에 있었던 지카바이러스 및 항생제에 관련된 감염내과 grand round와 둘째주에 있었던 흡연율을 낮추는 방법에 관련된 임상 연구에 대한 발표였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창궐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고, 서울대병원의 감염관리실처럼 MGH의 감염관리실에서 항생제 내성 및 항생제 처방에 관련된 발표를 들었던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서울대병원에서 이루어진 MGR과 매우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었고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다.

**8) Dr. Bruce Chabner Clinical Pharmacology / Basic Oncology Lecture (2016.07.12.)
(2016.07.25.~2016.07.27.)**

MGH Cancer center의 director 이셨던 Dr. Bruce Chabner 교수님이 7월에 새롭게 온 펠로우 선생님들께 Clinical Pharmacology에 대해 강의하시는 내용을 청강할 수 있었다. 딱딱한 강의 형식이 아니라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문답식으로 1시간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에 교수님께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우리 셋을 위해 내주셔서 기본적인 Oncology에 대한 내용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유방암, 림프종, 간암, 폐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Targeted therapy 및 Immuno-therapy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9) Ether dome 견학 (2016.07.05. / 2016.07.20.)

MGH에는 서울대병원의 대한의원 건물처럼 예전에 병원으로 사용하였던 건물(Bulfinch Building)을 행정업무를 위한 건물로 사용하면서 이와 더불어 맨 위의 Ether dome을 기념비적인 장소 및 컨퍼런스를 위한 장소로 만들어놓았다. 의학사 및 외과 시간에 배웠던 수술의 역사 내용을 되짚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예전 의과대학의 계단식 강의실이며, 교과서에 나온 공간을 직접 가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특히 역사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주 수요일에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ocial service conference를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